



## 언어는 존재의 집?

박진숙

### 0. 여는 말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말'을 하고 듣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 '넌 참 말이 없구나'하고 말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말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문자 그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말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응으로써,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함으로써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도 하고, 상대방의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도 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쉴 새 없이 들이마시고 내뿜는 호흡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한다는 행위'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숨쉬기 운동 정도로 여기고 살아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일반인들(비전문가들)에게는 은근히 무시되어 왔던 말, 즉 언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우선 소쉬르Saussure부터 시작된 현대 언어학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함으로써 언어의 일반적인 구조나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소쉬르 이후 현대 언어학이 20 세기의 제반 학문들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관점에서 현대 언어학(언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개진해 보는 순서로 글을 써 내려가고자 한다.

### 1. 현대 언어학의 시작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는 소쉬르이다. 그를 일컬어 언어학의 태두(泰斗)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결정적으로 1878년에 「인도 유럽어의 원시 모음 체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언어학에 역사적인 발전을 가져옴을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면, 소쉬르 이전의 언어학은 도대체 어떠했길래 현대 언어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 크게 18 세기와 19 세기의 언어학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18 세기까지 언어학자들은 “언어학이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해 준다”<sup>1)</sup>(조나선 킬러, 85쪽)는 가정 아래 연구를 진행했다. 말하자면, 언어가 사물의 재현이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18 세기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인 콩디락Condillac은 “생각에는 자연적인 근원이 있으며, 사고와 추상적인 개념의 존재는 설명할 수 있음”(앞의 책, 87)을 입증하고 싶어했으며, “추상적 개념이란 기호가 창조되는 과정의 산물”(87)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는 “언어가 원시적이며 비사고적인 기원에서 생겨나는 자연적인 과정”(87)임을 설명해야 했다.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콩다악을 비롯한 18세기 언어학자들은, 예를 들어, ‘개’라는 단어가 형성되기까지는 ‘개’-멍멍 짖고 꼬리를 흔들어대는 동물-라는 물리적 실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시의 학자들은 단어의 기원을 찾아서 ‘왜 그 단어가 그런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는 데에 골몰했고, 자연히 어원학이 당시 언어학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단어의 언어에 집착한 이유는 “단어가 자의적인 기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바탕을 가진 표상”(89)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19 세기에 오면서,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마음의 연결 관계, 즉 “단어가 재현”이라는 18 세기의 사상을 부정한 후, 단어를 하나의 형태로 보고 다른 형태와의 유사성이나 그 단어의 역사적 연계를 추적하는 작업에 집중하게 된다. 때문에 비교 문법이나 비교 문헌학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18 세기 언어학에 비해서는 한 단계 발전한 것이기는 하나 아직은 미흡한 단계였다.

19 세기 후반에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비교 문헌학에서 시작하여, 라틴어와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를 비교 연구하던 소쉬르는 여타의 학자들과는 달리 ‘언어의 본질’에 관심을 두었다. 여러 언어들만 단순히 비교해서 그것들 사이의 상응 체계를 밝혀내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 언어들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밝혀 내고자 애썼던 것이다. 소쉬르의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데에는 ‘신문법학자’라고 알려진 일련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큰 영향을 끼친다. 그들의 주장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음성 변화의 방향은 같은 언어권 내에서는 늘 일정하게 일어난다”(100)는 것인데, 몇몇의 음운 법칙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라면 ‘예외 없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예외 없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언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은 비로소 언어에 일반적인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만약에 18세기 학자들처럼, 어떤 단어가 그것이 가리키는 물리적인 실체(대상체réfèrent)와 유기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그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태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개를 개가 아닌 다른 단어로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멍멍하고 짖는 동물을 우리말로로는 개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dog’라고 부르며, 불어로는 ‘chien’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말로 개만 개고, dog는 개가 아닌가?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용비어천가』에는 ‘여름 하나니’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서 여름은 ‘기온이 평균 25도를 웃돌며, 덥고 습한 계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열리는 과실, 즉 ‘열매’-예를 들어, 사과-를 의미한다. 용비어천가가 불리었을 당시에는 여름이었던 것이 현대에 와서는 열매가 되었으나 결국 같은 대상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과의 모양이나 맛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뀐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때나 지금이나 익으면 빨간 빛을 내고, 향긋한 냄새가 나며, 씹으면 ‘아삭’하는 소리가 나는 물리적인 특성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음운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여름이 열매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다.

바로 위와 같은 특성을 언어의 자의성(自意性, arbitraire)이라고 부른다. 이 자의성은 어떤 특정한 언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정리하자면, 언어와 실제 대상 사이에는 어떠한 자연적인 관계(당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개라는 단어에는 전혀 개다운 면이 없으므로 우리는 자음 ‘ㄱ’과 모음 ‘ㅏ’의 연결한 1음절 단어가 아닌 다른 자음과 모음을

조합으로도 그것을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자의성이 있다해도, 우리가 개를 공통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한 언어가 어떤 집단 속에서 운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관습, 계약 convention)이 필요하다. 똑같은 대상은 어떤 사람은 개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공통이라고 부른다면 도저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공동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경우,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일종의 약속이 맺어지고, 항상 그 약속에 따라 해당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공동의 합의에 의해 그 약속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이 단독으로 규칙을 바꿀 수는 없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특성, 자의성과 약속이 모든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임을 밝혀냄으로서 비로소 소쉬르는 현대 언어학의 빗장을 열었다.

## 2. 소쉬르 언어학(기호학)의 기본 개념들

이제 소쉬르가 밝혀낸 언어 일반의 특징들을 몇 개의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정리해 보기로 하자. 어떤 단어가(혹은 문장)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할 때, 소쉬르는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차이'에 의해 생겨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두렵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단어는 '겁난다', '공포스럽다', '소름끼친다' 등의 단어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그것들과의 미세한 차이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한 언어 체계는 장기관에 비유될 수 있다. 장기관에는 가로 세로 몇 개의 줄이 그어져 있다. 그 위에 여러 종류의 장기알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장기관 위에 어떤 지점에 놓여 있는지, 다른 장기알과의 거리나 위치는 어떤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치를 얻은 장기알을 가지고 '장군'이나 '명군'을 부르듯이, 언어에서 다른 단어들(문장들)과의 차이를 통해 의미를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변별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말한다.

소쉬르가 사용한 용어들은 대부분 이항대립binarisme으로 이루어진다. 랑그langue/빠롤parole, 시니피앙(기)signifiant/시니피에(기)signifié, 계열체paradigmatique/통합체syntag matique, 통시적diachronique/공시적synchronique, 함축connotation/외연dénotaion 등, 두 개의 항이 한 쌍을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중에서 처음 3 개의 쌍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랑그와 빠롤을 보자. 랑그는 각자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언어 체계를 말한다. 반면, 빠롤은 그 잠재된 언어가 실제화된 형태를 말한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말들은 그러니까 빠롤에 속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시니피앙(기표)와 시니피에(기의)를 보면, 우리말 표현대로 기표는 기호의 표현, 즉 형식이며, 기의는 기호의 내용, 즉 의미에 해당한다. 기표와 기의가 합쳐져서 기호가 된다는 말이다. (기표 + 기의 = 기의).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둘이가 순이에게 장미를 선물한다고 하자. 장미를 전달하는 행위는 기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행위에 담긴 의미 '사랑해'는 기의에 해당한다. 이렇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는 표현 부분과 내용 부분, 즉 기표와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윙크를 한다고 해 보자. 이 윙크라는 행위는 기표이며, 이 행위로 인해 생겨나는 의미, 가령 '나 어때요?' '한 번 사귀어 볼래요?' 등은 기의이다. 예외적으로, 기표만 있고 기의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음표가 대표적이다. 악보 상의 음표는 순수한 형식일 뿐 자체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

다. 이런 특성 때문에, 서울대 음악과 서우석 교수는 음표를 ‘떠도는 기표’라고 부른 바 있다.

마지막으로, 계열체와 통합체라는 이항 대립쌍에 대해 알아보자. 쉽게 말하자면, 전자는 종적인 개념이고 후자는 횡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문장이 있다고 할 때, ‘나’라는 주어의 위치에는 너, 그, 그녀, 그들 등이 올 수도 있고, ‘너’라는 목적어의 위치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를, 그녀를, 그들을 등이 대치될 수 있으며, 서술어인 ‘사랑해’ 대신에도 좋아해, 미워해, 용서해, 이해해 등의 다른 동사들이 올 수 있다. 각각의 항목들에서 하나씩 ‘선택’에서 문장으로 ‘조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장이 나올 수 있다.

나는 그를 좋아해.  
그녀는 나를 미워해.  
그들은 너를 용서해.  
.  
.

이렇게 각각 종으로 늘어서 있는 여러 항들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에서 횡으로 조합하는 행위가 문장을 만드는 기본적인 매커니즘이다. 그러나, 이런 매커니즘은 단순히 언어의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을 차리는 행위’, ‘옷을 입는 행위’에도 마찬가지로 계열체적 행위와 통합체적 행위가 따른다. 밥, 국, 나물, 김치, 이렇게 간단하게 차려진 상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쌀밥, 보리밥, 현미밥 등등...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나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콩나물,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등등... 이런 식으로 밥 종류 중에서는 무엇을, 국 종류 중에서는 무엇을... 이런 선택 과정을 거쳐 상 위에 늘어놓았을(조합했을) 때 비로소 상이 차려지는 것이다. 옷을 입는 과정도 생각해 보자. 아래에는 청바지를 입을 것인가? 면바지를 입을 것인가? 위에는 스웨터를 입을 것인가? 티셔츠를 입을 것인가? 등등의 선택 과정 이후에 조합이 이루어져야만 약속 장소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소쉬르의 기호학은 그 범위를 인간의 언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밥상도 분석의 대상, 즉 텍스트가 되고, 옷 차림새도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 나아가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한 장면, 바흐의 음악,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물 등, 기호학의 텍스트는 무궁무진하다. 1960년 대에 구조주의의 팽창기와 더불어 가장 흥황하다가 빛을 잃었던 기호학은 그 분과가 다양해지면서, 1990년에 요리 기호학, 의상 기호학, 영화 기호학, 음악 기호학, 건축 기호학, 만화 기호학... 등등 기호학이라는 매스를 대면 무엇이든지 분석 가능할 것이라는 일종의 ‘기호학적 제국주의’로 부활하기에 이른다.

### 3. 기호학의 한계

하지만, 제국주의라는 이름이 그것의 운명을 예고해 주듯이 20 세기를 풍미했던 기호학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앞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기호학의 근본적인 원리는 ‘내재성immanence’이다. 풀어 말하면, 텍스트는 자체적으로 완결성을 갖지 때문에, 텍스트 생산자가 수용자는 그것의 분석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의 구조주의 언어학자이면서 비평가인 롤랑 바르뜨Roland Barthes는 “작가는 죽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이제 작가는 죽고 작품만 남았다는 말인데, 작품은 자체적으로 운동성이

있어서 그 내부에서 무수한 의미를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언어학자 벵브니스트 Benvenist는 '말하는 주체'가 아닌 '말해진 것(말화문) 속에서 구성된 주체' 개념을 중시했다. 즉, '말을 하는 나'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한 말 속에서 표현된 나'만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인간의 실존은 간데 없고, 인간이 생산해낸 말만이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90년 대에 들어, 내재성의 원리가 공격- 건조한 작품 해석, 창작자의 뉘이 무시됨 등-을 받게 되자, 기호학자들 사이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그레마스 Greimas와 폰타니의 Fontanille을 비롯한 파리 기호학과는 『정감의 기호학 Sémiotique des passions』 (1991)이라는 책을 펴냄으로써, 이제까지 기호학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인간의 감정이라는 부분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또한 캐나다나 호주에서 활동하는 몇몇 학자들이 기호학과 생물학과의 만남, 생물기호학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아직 눈에 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는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 21 세기에 기호학(언어학)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멸할는지 아니면, 획기적인 새로운 방향을 찾을는지... 하지만, 필자가 짐작하기로 는 죽어버린 작가(인간 존재)를 부활시켜 내지 않고서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힘이 들 것이다.

#### 4. 맺는 말 - 그리스도인로서 기호학 하기

이 부분은 사실 필자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배재대학교 신학과의 양명수 교수는 「폴 리피르의 상징과 구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1998년 한국 기호학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신학과 기호학과의 연계 가능성을 개진해 보이기도 했으나, 폴 리피르의 사상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한 정도이어서 뭐라고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신학과 언어학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필자 개인적으로 언어학과 신학 사이의 균형면을 볼 때, 다분히 후자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굳이 신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일반인들이 일상 생활에 기호학을 응용해 볼 여지는 많다. 예를 들어, 한 편의 광고를 보면서, 그것에 사용된 카피(문자 텍스트)와 영상 이미지(영상 텍스트)가 만나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 내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광고주의 음흉한 의도를 찾아낸다는가, 뉴스 중에 아나운서가 자주 사용하는 어휘들을 분석해서 어떤 사건을 대하는 그 방송사의 입장을 판단한다든지, 한 감독의 여러 영화들을 몇 편 보면서, 그것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적인 특성들을 짚어냄으로써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미를 짐작해 보는 것 등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호학적 실천(?)이다. 최대한 의미를 잘 전달하고자 어휘 선택에 심혈을 기울이는 행위 역시 필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본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 언어학'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은 다음 기회를 빌어 쓰기로 하고, 이만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

1) 조나선 켈러 지음, 소쉬르, 시공 로고스 총서, 시공사, 1998, 85쪽.